

3월 16일(월) / 출9-12

▶내용요약: 9장은 네 번에 걸친 강력한 제양에도 불구하고 강박해져 갔던 바로와 애굽위에 좀 더 강력한 제양을 내리시는데 모든 생축이 악질로 죽게 했고 애굽인들에게는 악피부병인 독종제양을 내림으로 고통스럽게 하였고, 우박제양으로 소산물을 황폐케 하셨다. 10장은 제양예고와 신하들의 압력에 바로의 타협안 및 빛을 차단시킬 만큼의 메뚜기 때 습격으로 애굽이 황폐화된 사건을 소개한다. 11장은 연이은 아홉 가지의 제양을 목격하도 강박한 고집을 꺾지않고 버틸 뿐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열 번째의 제양, 곧 모든 초태생의 죽음의 무서운 하나님의 제양을 선언하는 장면이 소개된다. 12장은 열 번 제 제양을 내리시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에 대비한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 유월절 의식과 무교절의식이다.

▶질문: 강박한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은 몇 번의 제양을 내리셨나?(11-12장)

▶생각하기: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양을 잡아 피를 집 문의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는데 유월절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전5:7, 요1:29).

3월 19일(목) / 출37-40

▶내용요약: 37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 내부에 들어갈 성물(聖物) 중 가장 핵심적인 언약궤(법궤)제작, 성소 복편에 위치될 진설병 상과 대접, 손가락, 잔, 병의 제작, 성소 내부를 밝혀줄 등대와 불집게, 불뿔 그릇의 제작 장면을 소개한다. 38장은 번제단,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와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한 씻는 그릇인 물두멍, 성소와 외부를 구분할 울타리, 성막건축에 참여한 일꾼들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소개한다. 39장은 성막에서 섬길 대제사장이 착용할 복장이 제작되고, 성막 건축의 경과와 결과를 성막건축의 총감독인 모세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40장은 성막봉헌식에서 준수해야 할 규례, 성막의 주봉사자인 제사장의 성별과 위임식, 성막의 완성과 봉헌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위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최종적 인준이 내려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질문: 광야생활 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무엇이었는가?(37장)

▶생각하기: 광야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처소인 성막은 신약에 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사건(임마누엘)으로 그 절정을 이룬다(요1:14).

3월 22일(일) / 레19-21

▶내용요약: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과 부모 공경과 수상금지 및 희생제사와 관련된 법규들을 소개하고(1-8절), 이웃과의 관계에서 요청되는 기본 도리인, 약하고 소외된 자 보호를 위한 이삭추수 금지, 노예의 인권보장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흠치는 일과 거짓 언행금지, 험담을 금하고 이웃사랑 실천, 음란한 이방문화 금지, 어른공경과 나그네 사랑과 장의 실현에 힘쓸 법규들을 소개한다(9-37절).

3월 17일(화) / 출13-16

▶내용요약: 13장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자손대대 지켜야 할 무교절 규례가 다시 언급하고, 출애굽 구원 사건과 관련지어 초태생 규례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인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 장면을 기록한다(17-22절). 14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진치고 있을 때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 추격하는데 궁지에 몰린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 힘주시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대신 애굽 군병과 마차를 바다 속에 수장시키신다. 15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대 찬양과 여인들의 찬양과 울동,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던 백성에게 단물을 공급하신 마라의 쓴 물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16장은 출애굽이후 한 달이 흐른 때의 일로 광야에 이른 백성들이 양식문제로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시는 장면을 기록한다.

▶질문: 바로의 추격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원망하는가?(14장)

▶생각하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우리를 보호한다.

3월 20일(금) / 레1-3

▶내용요약: 1장은 당신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이 완성된 후 소위 히브리 5대 제사(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 제물을 온전히 태워 향기롭게 드리는 번제규례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보듯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 흘린 제물이 필요함을 보게 된다(히9:22). 2장은 1장이 동물성 제사라면 본장에는 곡식을 원재료로 드리는 소제, 즉 식물성제사(5대 제사 중 유일하게 피없는 제사임)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 등에 곁들여 드려지는 조력적이고 부속적인 성격의 소제 있는 동시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독립적인 성격의 소제가 있다. 3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 깊고 내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한 화목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질문: 유대인(히브리인)의 5대 제사는 무엇들인가?(1장).

▶생각하기: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피 흘린 제물이 필요한데 십자가의 보혈로써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그리스도의 은총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기억하자.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타락하고 음란한 우상문화에 휩쓸려 범죄하지 않도록 거듭 강조한다. 우상숭배자들과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 생명을 진멸시키겠다는 경고(1-9절), 성 범죄자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경고했고(10-21절), 그 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을 요청하신다(22-27절). 21절은 제사장의 성결과 완전에 관해 기록한다. 정결한 결혼과 제사장 자녀의 성적 순결, 대제사장에게 요청되는 까다로운 준수명령, 그리고

3월 18일(수) / 출17-20

▶내용요약: 17장은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마라-엘림-신 광야를 거쳐 르비딤에 장막 쳤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다. 물로 인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들이다. 출애굽 후 처음으로 아말렉 족과 전쟁하는 사건도 기록한다. 18장은 430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집단과 같았는데 명실상부 국가조직으로 개편하기위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시고 그의 조건을 통해 행정조직을 갖추도록 하셨다. 19장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와 영원한 소유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계시가 소개되고, 시내 산 어약에 앞서 백성들에게 성거를 요구하시며, 성결작업이 완성된 후 영광과 위엄 중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재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계시해주시다. 대신(對神)관계를 규정한 1-4계명과 대인(對人)관계를 규정한 5-10계명이다.

▶질문: 십계명은 두 가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무엇인가?(20장)

▶생각하기: 십계명의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는 모든 계명의 기초요 인간 삶의 나침반으로 매우중요하다.

3월 21일(토) / 레4-6

▶내용요약: 4장(그리고 5장)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疏遠)해진 인간이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속죄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속죄제(1-12절), 온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드리는 속죄제(13-21절), 족장이 드리는 속죄제(22-26절), 그리고 일반백성이 드리는 속죄제(27-35절)이다. 5장은 속죄제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과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속건제 내용을 기록한다. 6장은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들의 정결에 관해,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24-30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질문: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는 무엇인가?(5장)

▶생각하기: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위해 필수적인 속죄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피 흘리시어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속죄)하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표 하는 제사이다(마20:21절). 죄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을 알고 주변사람들에게 전하자.

제사장 요구되는 신체조건을 기록하고 있다.

▶질문: 19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요구된 두 가지는 무엇인가?

▶생각하기: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된 법규들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2대 명령으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다함없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분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의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따뜻한 사랑과 손길을 펼쳐야 한다(마25:40).